

## 보도자료

2010년 6월 9일(수) 오전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750-2730)  
인터넷정책과 양진용 사무관(☎750-2740) jjy@kcc.go.kr

# 민·관 협력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구축, 모바일 웹 2.0 지원 본격화

- 방통위, 이통사, 포털, 앱센터 지원본부,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 13개 기관 MOU 체결
-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체계(smac.kr) 오픈, 제1호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글로벌 앱개발 일괄(One-stop) 지원체계 구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6월 9일(수) 최근 스마트 모바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내 스마트 모바일 응용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SMAC : Smart Mobile Application Center)」 구축 협약(MOU)식을 체결하고, 제1호 민·관 협력 앱개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는 앱스토아에 올라가는 Native 앱 뿐만 아니라 웹 기반의 앱 개발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개발공간, 교육프로그램, API(앱개발 프로그램 제어 툴) 등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취약한 앱개발 환경 개선, 부족한 무선인터넷 전문인력 양성 및 스마트 모바일 관련 창업(Start-Up)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 협약식(MOU)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KT(이석채 회장), SKT(정만원 대표), LGT(이상철 대표), 포털(NHN, 다음) 그리고 앱센터지원본부(KAIST, 김진형 교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김경선 회장),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김진수 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김희정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홍남 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석호 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김성태 원장) 등 국내 민·관·연의 총 13개 무선인터넷 관련 핵심 사업자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앱 개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 공동협력사항

1. 모바일 앱 개발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 체계 구축
2. 모바일 앱 개발자 등을 위한 개발 장비, 교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제공
3. 오픈 API, SW 모듈 등 모바일 앱 개발 관련 기술 정보 제공
4. 디자인, 번역, 마케팅/기획 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인력 제공
5. 모바일 응용서비스 개발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컨퍼런스 공동 개최
6. 우수 모바일 응용서비스 발굴 및 연계사업 지원
7. 무선인터넷 분야 국내외 주요 정책 및 기술 동향 정보 제공
8.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 사항 등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사, 포털, 연구기관 등이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에 협력하는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민·관·연 협력 모델 >

구분	주요 임무 및 역할
방통위 (KISA)	종합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오픈 API 및 SW 모듈 제공, 앱 개발 인력간 연계 서비스, 커뮤니티 지원 등
이동사	앱 개발자를 위한 교육시설, 시험장비,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포털/연구기관	오픈 API 및 SW 모듈 제공, 기술 및 정책동향 정보 제공 등
대학/학원	디자인, 번역, 기획, 마케팅 인력 지원 등
협회/연합회	앱 개발자와 디자이너, 번역가, 비즈니스 기획자 등 상호간 연결 지원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 정보체계 (smac.kr)”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①오픈 API(앱개발 프로그램 제어 툴) ②S/W 모듈 ③앱개발 전문가 협력채널 제공 ④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he image displays the 'Smart Mobile App Development Support Information System'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지원 종합정보 체계) and its corresponding website interface (smac.kr).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지원 종합정보 체계**

- Open API**
  - 공공: 통계청, 서울시 등
  - 포털: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등
  - 이동통신: KT, SK텔레콤, LG텔레콤
  - 기타: 11번가, 현대TV, 밀라다 등
  - ※ Open API엔 신청자료 및 운영방안 주기 제공
- S/W 모듈**
  - 대여료: 웹엔터지정번호 등
  - 연구기관: ETRI 등
  - 기타: 국내외 오픈 소스
  - ※ 초기에는 오픈 소스 행위로 구축 후 특허를 통해 추가 모듈 제공 지원
- 전문가 협력 채널**
  - 디자인: 이화여대, 서울여대, 경원대, 0마켓 등
  - 번역: 번역리플렛, 번역닷컴, 굿뉴스 등
  - 기획/개발: 언어대, 디자인러, 뽀뽀 등
  - ※ 전문요청자, 요구수준 선택, 해당 권역과 지역 대응 선택
- 커뮤니티**
  - 현역: 실시간 현역자 연방 제공
  - 계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 지원금: 이동자금이 정책 지원 및 소스 등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작 예정

The website screenshot shows the 'SMAC' portal with navigation tabs for '소개', '오픈 API', 'S/W 모듈', '전문가 협력채널', and '커뮤니티'. It features a central banner for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and sections for 'Open API DB', 'S/W 모듈 활용', and '전문가 협력채널'. A list of service providers is visible at the bottom, including ETRI, KISDI, and others.

먼저, 개발자들이 앱개발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포털 사업자, 이동 통신사, ETRI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오픈 API 및 S/W모듈을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모바일 앱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앱 개발자와 웹 디자이너, 번역자, 비즈니스 기획자 등 개발 필수 인력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전문가 협력채널”을 제공하고, 앱 개발자 상호간의 정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등의 구축을 지원하여 앱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내에서도 구축하여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앱을 개발하려면 구현하고자 하는 앱에 대한 기획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앱을 개발하였더라도 글로벌 장터(앱스토어)에서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무한경쟁인 글로벌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유사한 앱이 유통, 판매될 때 디자인과 제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 등도 매우 중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앱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교육공간 외에도 테스트 베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각종 인프라를 지원한다.

KISA, KISDI, NIA는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 정보체계”를 운영하면서, 스마트 모바일 관련 국내외 시장 및 기술·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협회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는 각급 대학, 학원 등과 연계하여 앱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 번역, 기획, 마케팅 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갱신하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무선인터넷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개발자 상호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13개 정부·공공·민간기관의 전문가들로 「SMAC 협의회」를 별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SMAC를 발전시켜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온라인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 종합정보체계”에서 Open API, S/W 모듈, 전문가 POOL 등을 더욱 확대하고, 기술과 정책 동향정보 등을 새롭게 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센터에서도 현재 KT-에코노베이션, SKT-T아카데미, KISA 아카데미에 SMAC를 구축하였고, 금년내 수도권에 2~3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단계별로 지자체·대학·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개소와 협약(MOU)을 통해 해당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실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앱 개발자 등은 관련업무 수행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끝.